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6. 2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정 / 0117465** / 2024-06-24 16:29:25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6/17~6/21)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둔화에도 연준 위원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한 달러 강세에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프랑스 정국 불안 완화에 안도감 유입되며 강달러 압력 완화된 영향으로 약세 제한
- 중반, 미국 소매판매 부진으로 인한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 발언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영향 반영하며 상승
- 후반, 위안화가 절하 고시 이후 약세 압력 심화되자 원화도 이에 동조화되며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연준과 대비되는 SNB와 BOE의 완화적 기조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에 1390원대로 급등 출발 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증액과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등에 상단 제한되며 1380원대 후반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3.0	1,393.0	1,378.0	1,388.3	+5.3

달러/원 전망

- 미국 PMI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재부각 등으로 달러 강세 압력 지속되는 측면이 환율 상승 흐름에 주요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엔화와 위안화 등의 약세 흐름도 통화적 측면에서 원화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
- 다만, 전주 외환당국의 국민연금과 스와프 확대 등 1,400원대에 대한 강한 경계감 등은 수출 업체 등에 환율 고점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거래범위
1,380원 ~ 1,395원

이*정 / 0117465** / 2024-06-24 16:29:25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엔•유로화 동향 (6/17~6/21)

유로화 동향

- 주초, 프랑스 극우 정당 의원의 총선 승리 시에도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유로화 가치 반등. 이어 미국 소비지표 부진에 Fed의 금리인하 전망이 지지되며 유로화는 소폭 강세
- 후반, 스위스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와 영란은행의 비둘기적 금리동결 결정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유로화도 큰 폭의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유로존 6월 PMI는 둔화된 반면 미국 PMI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제 차이가 부각됨에 따라 유로화는 추가 약세 보이며 1.06달러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03	1.0762	1.0671	1.0693	-0.0010

엔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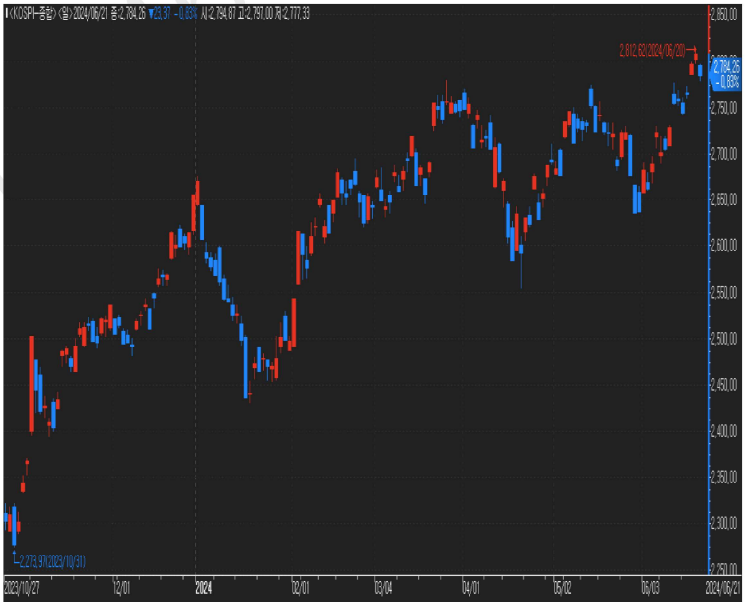
- 주초, 도비시한 BOJ 금정위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영향 더해지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우에다 BOJ 총재의 7월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에도 추가 긴축 부재 예상 속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인하 속도 차 부각에 따른 달러 강세와 미국의 일본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소식 등에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일본 5월 근원CPI 데이터에 BOJ의 추가 긴축 기대감이 여전히 제한되는 가운데 약세 압력 속 160엔선에 근접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7.4	159.8	157.2	159.8	+2.4

이*정 / 0117465** / 2024-06-24 16:29:25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10~6/1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 수급 요인과 정부의 금리인하 기대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출발. 이어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은 물가 설명회 이후 다소 되돌려진 가운데 연준 당국자의 신중한 금리 인하 전망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소폭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 소매판매 지표의 부진한 발표에 따른 미 국채 강세 등을 반영하며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하락 흐름
- 후반 들어, 최근 전반적인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한 차익실현 장세 흐름 보인 가운데, 주 후반, 외국인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 및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속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유럽내 프랑스의 의회 해산 등 유럽發 정치 불안 이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중국 경기지표 둔화 흐름 등이 반영되며 코스피는 하락 출발. 이어 뉴욕증시가 빅테크 업종 위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위험 선호 영향 반영 속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소매판매 지표 둔화 등에 따른 시장의 연내 금리인하 2회가 탄력 받은 가운데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효과에 따른 국내 대형주 상승 등으로 코스피는 2,800선에 근접
- 후반 들어, 미 증시 휴장에 따라 코스피의 거래량과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금리 동결 등의 주변국 긍정적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 후, 주 후반, 미국 기술주 조정 영향 등이 반영되며 4거래일 만에 반락, 2,800선을 내주며 마감

이*정 / 0117465** / 2024-06-24 16:29:25